



7월 4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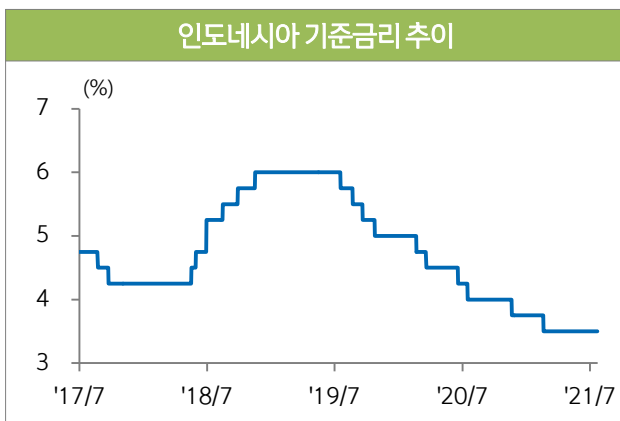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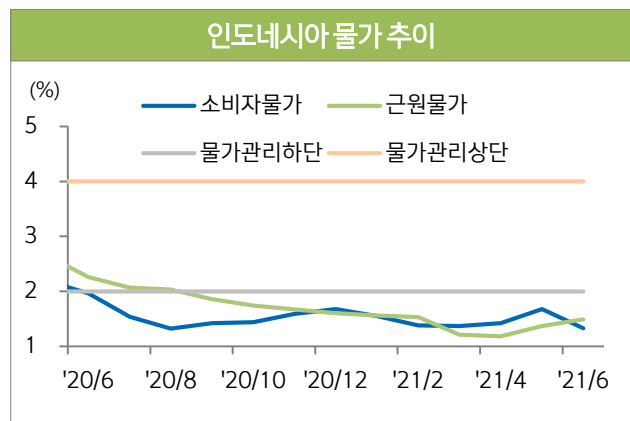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코로나 델타변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기준금리 재차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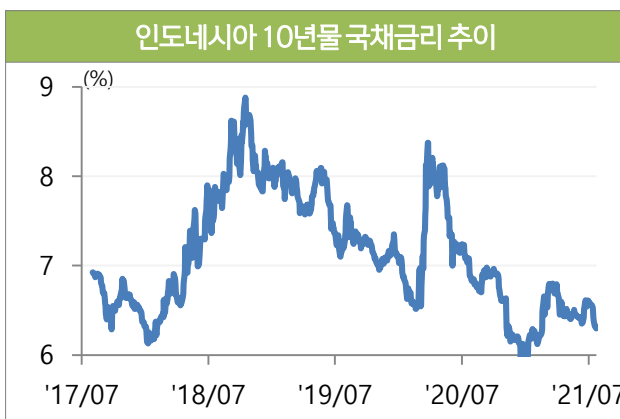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7/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5개월 연속 동결하였음.** 해외IB들이 동결을 예상하였던 대로 동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발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6월 중순부터 급증한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수가 7월 중순 5만 여명을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막고자 운영하고 있는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Emergency PPKM)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급락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동결 조치를 통해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3%로 전월의 1.68% 대비 하락하였으며, 근원소비자물가는 1.49%를 기록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2~4%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이동 제한 조치가 발효되면서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고용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인 소비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물가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다른 신흥국들과 달리 물가 부담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금융시장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델타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음. **美 연준이 빠르게 테이퍼링에 나서기보다는 델타변이 및 부채한도 상향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정책 변화를 천천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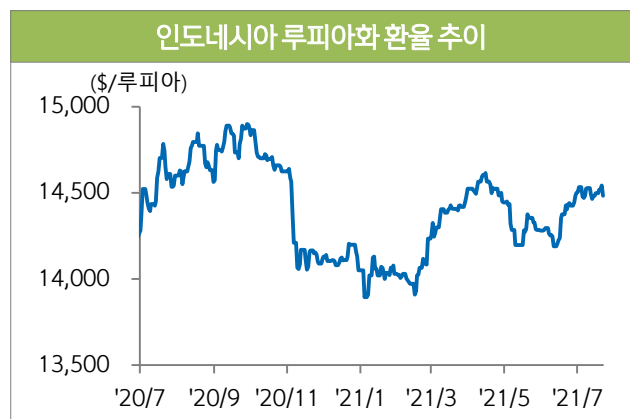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7.23	7.1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68.83	1,299.31	↓ -2.35	↑ 14.94	785.17 '20/07/27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101.69	6,072.51	↑ 0.48	↑ 2.05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975.80	53,140.06	↓ -0.31	↑ 10.94	36,553.60 '20/09/24	53,158.85 '21/07/15
중국	상해종합	3,550.40	3,539.30	↑ 0.31	↑ 2.23	3,196.77 '20/07/24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68.14	2,454.06	↑ 0.57	↑ 5.96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9,839.05	10,152.95	↓ -3.09	↓ -8.38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7,321.98	28,004.68	↓ -2.44	↑ 0.33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54.42	3,276.91	↓ -0.69	↑ 13.26	2,200.44 '20/07/24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7.23	7.16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1	2.20	↑ 0.90	↓ -37.40	2.20 '21/01/15	3.60 '20/07/23
인도네시아	6.30	6.37	↓ -6.20	↑ 41.80	5.89 '20/12/30	6.98 '20/09/10
인도	6.23	6.21	↑ 1.90	↑ 36.60	5.77 '20/08/05	6.25 '21/03/10
중국	2.91	2.95	↓ -3.60	↓ -23.40	2.87 '20/07/24	3.36 '20/11/19
한국	1.88	2.02	↓ -13.50	↑ 16.00	1.28 '20/07/30	2.20 '21/06/0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7.23	7.1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99.00	23,010.00	↓ -0.05	↓ -0.43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493.00	14,498.00	↓ -0.03	↑ 3.15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41	74.56	↓ -0.21	↑ 1.83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8	6.48	↑ 0.03	↓ -0.70	6.37 '21/05/28	7.02 '20/07/24
달러-원 (KRW)	1,150.57	1,139.79	↑ 0.95	↑ 5.90	1,081.81 '20/12/04	1,201.45 '20/07/24

# 주요 뉴스





## S&P,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신용위험을 높인다고 경고



### ❖ 요약 및 시사점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negative 전망을 지속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가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성장률 하향과 정부 부채 부담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국가 예산 여유도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 내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S&P가 평가하였음.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제 조치가 장기화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버퍼가 날아가버릴 수 있다(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S&P의 Eunice Tan 신용 애널리스트가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면서, S&P는 6월에 인도네시아의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4.5%에서 3.4%로 하향 조정하였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S&P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5.7%의 GDP대비 재정적자보다 악화된 6%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음.
- S&P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negative로 유지하였지만, 높은 재정 적자와 낮은 재정 수입 기반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이자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음.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S&P가 인도네시아의 대외 시장에서의 개선이 보이는 점으로는 수출 성장세의 개선 부분이었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출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음.
- 소매업이나 운송업, 관광업과 같이 이동 제한 조치에 타격을 많이 받는 기업들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조달을 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이러한 조달 환경과 늦춰지는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신용 상태가 양극화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함.
- S&P는 비금융회사들의 약 40% 정도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negative outlook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국가 기업들에 비해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negative outlook을 부여받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였음.



##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물품 수출이 급증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상반기 수출에서 제조 물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순한 원자재 수출이 아닌 가공 물품의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고 평가하였음.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만이 경제 회복을 지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상반기 제조업 수출이 지난해 대비 33.45% 증가한 81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산업부에서 발표하였음.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이 전체 수출 1,028.7억 달러 가운데 78.8%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제조업 부문으로 하여금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는 국가 경제 회복의 촉매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6월에 제조업 수출은 140.8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 185.5억 달러의 75.91%를 차지하였음. 제조업 부문 수출은 기초 원자재 뿐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제품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6월 수출품 가운데 공업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철강/제철 산업으로 19.9억 달러, 동식물유 산업이 18.9억 달러, 전자제품이 10억 달러, 차량 부품이 7.3억 달러, 고무 및 고무 가공품이 6억 달러를 차지하였음.



## 관광부 장관, 관광 및 창조경제 산업 노동자들의 90~95% 백신접종 목표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REPUBLIC OF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관광부는 거점 접종센터 운영 및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및 창조경제 부문의 노동자들 90~95%의 접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가속화가 답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백신 접종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관광 및 창조경제 장관은 올해 관광 및 창조 경제 부문 노동자들의 90~95%까지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였음. 지금까지는 단지 5% 정도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백신 대규모 접종을 가속화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관광 및 창조 경제 부문 노동자들의 접종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관광부에서는 국가관광대학(PTNP)에 6개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하고, Authority Body(BO)에 3개의 백신 접종처를 마련하였음. 이들 9개 백신 접종처를 이용하여 올해 10월말까지 3백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다음달까지는 38,000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대규모 접종 센터를 유지하며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임.
- 이에 더해 보건부 및 지방 정부, Grab Indonesia, Traveloka, Homecare24, Alodokter, Locket, Tiket.com, PT MNC 등 민간 기업과 함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진행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음.
- 이러한 대규모 접종 확설화를 통해 연말까지 관광산업 노동자의 90~95% 접종을 마쳐서 관광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강조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 인니기업인협회,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인해야 된다고 요청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기업인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릴 방법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투자부가 외국인 및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하여 고용 및 생산 확대를 가져와야 하며 올해 신설된 투자부에 역할을 요청하였음

- 인도네시아 기업인협회(Apind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부를 통해서 외국인 및 국내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를 이끌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옴니버스 법안의 이행이 투자를 현실화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았음. 백신 접종 노력 확대와 더불어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음.
- 수출 기반의 제조업, 제약업, 차량제조업, 인프라, 광업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음. 투자부는 창의 및 기술 부문이 장기적으로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임
- 투자부는 향후 3년간 카길의 글로벌 식품 기업 중 하나로부터 3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음. 해당 투자 계획은 2022년 초까지 동부 자바지역에서 5천만 달러의 확장 투자 및 1억 달러의 옥수수 가공 플랜트를 상업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2억 달러 규모의 팜오일 정제 설비를 Lampung 지역에 건설하여서 2022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인 협회에서는 투자자들이 허가를 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해주는 등의 투자 유치 노력들을 투자부가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투자부가 세금 감면, 세금 면제 및 기계류/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예외 적용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고용을 늘리고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추천하였음.





## 인니기업인협회, 핵심 산업의 가동 재개를 요청



### ❖ 요약 및 시사점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가동 중단 조치가 길어지면서 기존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품을 이행해야하거나 글로벌 수요가 높아서 현재의 기회를 놓치기 어려운 기업들에서는 제한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짐

- ▶ 인도네시아 기업인협회(Apindo)는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PPKM) 조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인력 100%, 지원 인력 25%의 한도를 두어서라도 필수 제조업 부문의 가동을 허용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 지난 수요일(7/21) 온라인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Apindo의 Hariyadi Sukamdan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7/26일 이후에도 현재의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필수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를 통해 운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음.
- ▶ 그렇게 해야 코로나19 와중에서도 국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으며, 기업들은 강한 보건 통제 조치를 할 것이고 산업부에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하는 등을 통해 보건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또한 정부에게 계약 관계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해외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한다면 치뤄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그리고 수입물품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국내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며, 지금 당장 글로벌하게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섬유, 의복,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운영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음.
- ▶ 필수적인 산업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부문의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도 생산인력의 50%, 지원 인력의 10%로 최대 운영인력을 제한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였음. 정부가 이러한 부문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기업들이 보건 지침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 및 민간 단체에 의해서 점검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음.
- ▶ 필수적인 제조부문의 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방역 조치를 취한 이후에 최대 가용 인원을 생산인력 50%, 지원 인력 10%로 줄여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이러한 개념으로 비 필수 제조 기업에서 확진 직원 발생 시에는 생산인력 25%, 지원 인력 5%로 줄이면 될 것이라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 인니 쇼핑센터협회, 정부에 근로자 임금 50% 보조 요청



### ❖ 요약 및 시사점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발생한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계 수준을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임금 지원, 세제 지원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분담을 요청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쇼핑센터협회(APPBI)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쇼핑센터들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50%의 보조를 요청하였음. 해당 보조금은 쇼핑센터 기업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회보장 위원회(BPJS Ketenagakerjaan) 이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이면 된다고 alphonzus Widjaja 협회장이 말하였음.
- 일부 쇼핑센터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임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그는 말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액 임금 지급이 아닌 부분적 임금 지급을 선택하거나 해고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음.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 조치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사업자들도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그는 정부가 전기료, 가스료, 광고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방법도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도 일반적인 영업일처럼 해당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말하였음. 보건 조치를 위해서 취해지는 정부 정책에는 지지하지만, 정부가 쇼핑센터 운영 기업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출하였음. 이미 쇼핑센터들은 임차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하였음.



## 인니 환경부, 순환경제 지원 정책 도입



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REPUBLIK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 전략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음. 폐기물 수거 및 분류, 업사이클링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인센티브들을 제공하여 단순 폐기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더 많은 폐기물 처리소 운영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구축 정책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폐기물을 선별하고 가공하는 폐기물 업스트림 정책, 폐기물 처리소 운영 및 생산자들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감축 로드맵 의무화 등을 통해서 폐기물의 순환 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환경부 장관은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 순환 경제 포럼에서 진행된 온라인 포럼에서 환경부 장관은 순환 경제의 이행이 커뮤니티 단위까지 이행될 수 있는 단계적 이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곳으로 사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처리소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지점 또는 수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재활용 산업은 이렇게 정리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발표하였음.
-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및 폐지 등의 재활용을 하는 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전체 폐기물 가운데 29%가 플라스틱이나 폐지이지만, 현재 재활용률은 전체의 50%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혀 이용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하고, 폐지 재활용 산업도 2배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재활용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플라스틱 및 폐지 수집 캐파를 늘리고, 단순폐기되는 것에서 분리해내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전략을 도입하였음.



## 인니 정부, 연말까지 전기료 할인 연장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 자원부는 전력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제공중인 전력 소비자들에 대한 할인을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하는 조치임

- ▶ 국영전력기업 PLN은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PPKM)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력 소비자나 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4.97조 루피아(34억 달러) 수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전기료 감면 3개월 연장을 지난 월요일(7/19) 발표하였음.
- ▶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3,290만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6.75조 루피아의 전력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전기료를 감면하였음. 올해 연간 총 전력 보조금 규모는 11.72조 루피아가 되는 것임. 9.46조 루피아는 월간 전기료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2.26조 루피아는 전력망 가입비 지출 등 기초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될 계획임.
- ▶ PLN에서는 이러한 감면 조치 연장이 소가구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구매력을 만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6개 전력 사용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낮은 사용량인 450VA 카테고리의 사용량을 보이는 전력 소비자나 산업체들의 경우에는 50%의 감면이 이뤄지게 됨. 이러한 조치는 2020년 초부터 운영되고 있음. 차상위 구간인 900VA 구간을 사용하는 가계나 기업은 25%의 할인을 적용 받게 됨. 그리고 산업 및 공공서비스 전력 이용자들은 최소 요구량의 50%를 면제 받게 됨. 후불 납부자들의 경우에는 전력 사용 요금표에서 할인된 만큼을 적용받아서 요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임. 선납자들의 경우에는 선납 시에 할인을 받게 됨